

20년간 새벽 3시 반 출근, 매일 연장근무 극한직업, 고대의료원 영양팀

점심시간, 고된 업무 중 맛있는 밥 한 끼로 나를 달래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직원식당의 메뉴나 운영에 있어서의 불만을 표현해도 운영시스템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외주화가 더 낫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식사의 질과 메뉴가 나아지지 않는 건지. 왜 다른 병원보다 맛있다는 소리 나오지 않는 건지.

주 6일 근무, 새벽 3시 반 출근, 공석 자리, 매일 연장근무, 근골격계 유해요인 및 작업환경 측정 대상에 항상 포함. 이 문제들을 모두 떠안고 있는 곳이 영양팀입니다.

남들이 쉬는 주말.

20여 년간 이어진 주 6일제의 삶.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의 식사를 책임지기 위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직원식당의 문은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영양팀 직원들은 일주일 내내 출근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 6일에 하루만 겨우 쉬고 있었으나 소정근로시간(52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이 코앞에 닥쳐 격주 5일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 5일제로 투입된 인력은 원래 있던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뿐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주 5일 근무는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자는 새벽 3시 30분.

750인분의 환자식과 치료식을 단 12명이 준비.

20여 년간 이어진 1시간 반의 공짜노동 제공

병원이 커지면서 병상 수가 늘었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위) 오전 3시 40분. 준비를 위해 조리장 불이 켜짐

아래) 오전 3시 55분. 직원 조리장 입장.

2022년 11월 평균적으로 제공되는 환자식은 약 750인분(환자식 500인분, 치료식 평균 250-300)에 달합니다.

영양팀의 공식 출근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아침이 제공되어야 하는 시간은 새벽 7시입니다.

두 시간 동안 750인분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인원은 단 12명(환자식 6명, 치료식 6명)입니다. 12명으로 2시간 만에 750인분의 식사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배식이 7시에 시작되어도 66병동의 마지막 환자는 7시 40분에나 식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식을 하는 인원도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전 5시에 업무를 시작하면 그 환자는 언제 아침을 먹을 수 있을까요? 병원은 오전 5시 정시출근을 하란 말만 되

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말입니다.
결국 해당파트의 직원들이 전달 재료를 손질해놓고 오전 3시 반과 4시 사이에 출근해 음식을 조리합니다. 만약 재료 손질을 전달 해 놓지 않았다면 더 이른 시간에 출근했어야 할 것입니다.

12명이 750인분의 식사를 정시출근하여 제시간에 환자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업무가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까?

입원한 환자들이 완쾌되어 퇴원하기까지는 치료뿐만 아니라 제시간에 제공되는 영양가 있는 식단도 필수입니다. 환자들의 식사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 인력충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출근도 온전히 직원들의 몫입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택시를 이용하거나 가족의 도움으로 차를 얻어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오전 3시 반 출근을 위해 사용한 택시비는 8,000원가량이고, 약 20일 출근으로 계산한다면 16만 원의 지출이 매달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가족의 도움으로 출근을 하는 직원들은 같이 일어나 새벽 출근을 도와야 하는 가족에게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자동차를 가져온다 해도 주차면수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영양팀 인력 운영 현황

| | | | |
|------------|-----------------------|------|---------|
| 총원 | 84명 | 현원 | 70명~72명 |
| 정규직 | 32명 | 비정규직 | 41명 |
| 공석 12명~14명 | | | |
| 정투입인원 | 64명(직원식 50명 /치료식 14명) | | |
| 실투입인원 | 58명 | | |

실가동률 79.2% ~ 87.5%(현원 72명 / 일일 휴가 인원 9명~15명(주휴, 생휴, 휴가등), 연차사용률 18%(10월 기준 총 1,110개 중 206개 사용)

병원이 커지니 영양팀 정원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현원 72명 중 정규직은 단 32명입니다.
의료원이 정년퇴직 자리를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 비율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일부 비정규직 직원들이 노동강도를 견딜 수 없

어 3일이면 도망가고 경희대 등 다른 병원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일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의 반복으로 공석은 무려 14자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엮힌 데 덮친 격,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직원 물품을 방지하기 위해 11:30부터 14:00이었던 식사 시간을 오전 11시로 당겼고 오후 2시에는 문을 닫아야 하지만 밥을 먹지 못한 직원들이 오게 되면 근무시간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조기출근에 코로나로 식사시간이 길어지면서 연장근무는 자동으로 떨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서에서 일하라고 한다면 일할 수 있을까요?

의료원은 영양팀의 근무환경 개선은커녕, 직원들의 애사심을 인질 삼아 무전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원은 ▲1시간에서 1시 반의 조기출근 수당과 심야수당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정년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노사 협상에서 시간제 비정규직에서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일부 전환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다. 시급 160원 인상이 고작 일뿐입니다.

이제는 영양팀의 정상화를 위해, 매일이 기다려지는 직원식당을 만들기 위해

정규직의 사직 자리는 정규직으로 충원!

조기출근과 연장근무를 줄이기 위해 인력충원!

얼마 전 구로병원은 코로나로 인해 인원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행정관에 제2 직원식당을 외주로 오픈했었고 메뉴도 인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사 인원이 거의 없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겨우 운영해나갔고, 코로나 완화로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외주업체가 운영한 식당에 식사 인원이 왜 없었을까요? 병원이 왜 식사유도를 위한 홍보를 해야 했을까요? 매일 적자로 운영되는 영양팀을 운영해 줄 외주업체가 식사의 영양과 질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영양팀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영양팀은 더이상 운영되기 힘들 것입니다.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충원으로 직원분들의 식사가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운 메뉴로 병원 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영양팀이 투쟁에 나설 때 응원의 목소리를 내어주시시오.